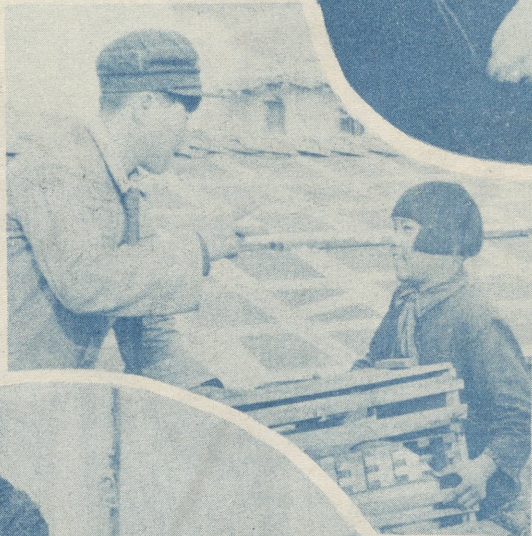
소년단

1959.12

토끼를 더 많이 더 잘 기르자!

평남 강서군 태산 중학교대 소년단원들은 481마리의 토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끼를 기르면서 사양 관리, 간호, 사료 조리등에 대한 지식을 훌륭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토끼를 해부하고 그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면서 동물학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토끼를 더 잘 더 많이 기르기 위하여 지금 새 토끼 우리들을 만들며 낡은 토끼우리들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도 많이 장만하며, 온실 형태로 분만실도 만들었습니다.

분만실의 가족수는 매일 늘어 가고 있다. 오늘도 8마리의 어미 토끼가 분만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분만실에서는 18마리의 새끼 토끼가 새로 생겨 났다.

《어서 많이 먹고 빨리 자라라》

《토끼우리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 내여도 모자란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12호 내용

김 일성 원수와 어린이

원수님께

전 초 민

원수님 우리는 모릅니다,
원수님은 하루'밤에 얼마나 주무시는
  지?

지금은 밤 열 두 시,
조용히 창을 열으시고,
꽃 전등에 싸여 새해를 맞을 거리를
미소 지으며 내다 보시는 원수님.

원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십니
  까?
백두산 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3천만 겨레의 기쁨도 슬픔도
한가슴에 안으시고
그렇게 새운 밤이 몇 천밤이나 되십
니까?

책상 우에 조국의 한장 지도를 펼쳐
  놓고
원수님께서 설계하신 새 행복은 그 얼
마 입니까.
붉은 연필로 언뎌진 밭에는 수로를 그
  며 넣고
마을과 거리엔 아담한 주택과 학교,
그리고 물'결 푸른 동해 기슭에 세운
휴양소와 소년단 야영소는 얼마나 됩
  니까?

이윽고 연필을 남쪽 땅으로 돌리여
홍수에 흘러간 마을에 새 집들을 세우
  고
숨 죽었던 공장 굴뚝마다 다시 연기를
  뿜게 할 것을 생각하시며
아 진정 그렇게 지샌 밤이 몇천 밤이나
  됩니까?

원수님 우리는 압니다,
장백의 눈보라 속에서 열 다섯 해,
간악한 일제를 무찔르며 싸우실 때도
원수님은 항상 인민의 큰 행복을
불타는 가슴에 안고 계시였음을.

원수님 소년단 맹세를 드립니다.
이 해에 배운 지식 더욱 다지며
새해에도 우리는 원수님처럼
한시도 조국을 잊지 않는 투사가 되기
  위해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겠습니다.

원수님이 열어 주신 넓고 밝은 배움의
  길에서
원수님의 해'빛 같은 손'길을 따라
공산주의 나어린 붉은 전사로 참되게
  참되게 자라겠습니다.

로동당 만세!

(제 2 회)

모쓰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지지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박 세 영

민주의 나라로 가는 길

모쓰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은
새로 설 나라의 바탕을 다져 주자는 것,
사람들 이 결정 받들어 나섰구나.
멀리 모쓰크바를 우러르며 감사하며.

다만 양키놈들 종노릇하는 매국노들이,
왜놈의 행세를 하던 한줌의 반역자들이,
애국자인체 신통히도 함께 날뛰였다,
흉악한 미제가 시키는 대로

허지만 당은 어둔 굴속에 해'별을 비치듯
놈들의 죄악 들추어 놓았다,

나라를 파는《반탁 운동》을 부시고
조국이 나아갈 바른 길 가리켰다.

모쓰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은
인민의 뜻으로 림시 정부 세우고,
자유로운 민주의 길로 나가도록
다섯해만 돌보아 주자는 것.

고마운 이 결정을 마다던 놈들
남조선을 미제 손아귀에 넘겼건만은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당의 부름 따라 모두 뭉쳐 일어 났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 창립 환영 평양시 군중 대회

얼마나 좋은 나라냐

억울하던 일 안개처럼 서리던 땅에,
왜놈들 쇠사슬이 철렁거리던 땅에,
김 일성 원수님을 위원장으로 받든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 는 섰다.

억눌리고 천대 받던 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인민의 정권,
부자들만 감싸 주는 자본주의 나라
제놈들의 정권과는 처음부터 다르다.

비온 뒤 참대 순이 돋아 나듯,
방방 곡곡에 일어 선 인민 위원회,

인민들은 자기 정권을 받들었으니
이 어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냐.

《오래동안 인민이 바라던 이 정권,
열 다섯해나 일제와 싸운 혁명 투사들이
처음부터 뜻을 삼은 이 정권이
북반부에서 이루어졌다.》원수님은 말씀
했다.

그 흉악한 제국주의와 그 쓰레기
지주 자본가들을 없애고
혁명의 기'발 높인 인민 정권
우리 새 조선은 얼마나 좋은 나라냐 .

20 개조 정강을 발표하시는 김 일성 원수

원수님이 품으셨던 생각

우리들이 태여나기도 오래 전
원수님은 벌써 생각하였네.
조선·인민이 세워야 할 나라는
《사람들 행복한 나라로 되여야겠다》고.

밀림 속에서는 별처럼 빛나던
그것은 십대 강령이였네
제국주의는 불살으고 낡은 봉건은 쓸
어내
민주 개혁으로 새 터전 마련하는 십대
강령.

당은 새 나라에 보다 알맞도록
20개조 정강으로 활짝 꽃피여 주었네,

근로하는 인민들 자유롭게 살도록
인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 되도록

땅은 발갈이 해도 굶주리던 농민들에게
철도며 큰 일터는 모두 나라의 것으로
배움의 길 바다 같이 열리고,
천대 받던 녀자들 떳떳하게 살도록.

나라를 꽃동산으로 꾸릴 20 개조 정강,
사람들은 한결같이 웨쳐 받들었네.
허나 왜놈과 미국범을 들씌운 남조선은
검은 구름처럼 인민을 짓눌렀네,

토지 분여 받는 날

땅이 부른 노래

마을의 농민들이 왜 저리 기뻐 뛰나,
머슴살이 하던 이들 왜 이리 춤을 추나,
신이 나 말뚝을 박으며 외이는 말,
《우리가 땅의 주인들이 되다니》.

피 땀 흘려 지은 농사 모조리 앗기고
헐벗은 농민들 마가리에서 살았지.
아이들은 누데기 쓰고 살던 세상
이런 세상이 몇 천년 내려 왔던가

가난한 농민들과 오랜날 살아 왔으니
내 어찌 농민들의 설음을 모르리,
허나 당은 새 세상을 마련하고
악착스런 지주들에게 벼력을 내렸지

아세아 땅에서 처음인 토지 개혁으로
천년 가난이 영영 물러간 땅에,
해 마다 새 풍년의 열매 맺어주리니
두루미도 이제는 정말 춤을 추려마.

글 강효순

그림 유환기

1933년 여름이였다.

연길현 팔도구에서 약 10리 가량 떨어진 곳에는 세 마을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마을들을 상촌, 중촌, 하촌이라고들 불렀다. 하촌으로부터 팔도구로 나가는 길'가에는 큰 닥나무가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닥나무 아래에는 짚으로 납작하게 집을 짓고 그 안에 종이를 느린 《귀신 집》이 있었다. 팔도구에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 오는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서 상에 물과 쌀을 떠 놓고 손을 부비며 무어라고 중얼거리는 아주머니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들에도 조직이 들어 오고 부녀회가 조직되고 아동단이 생긴 후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었다.

언제인가 야학생들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런 토론회가 있은 날 밤이였다. 야 학생들은 닥나무 아래로 달려 가서 《귀신 집》을 불 살라 버리고 말았다.

이날 《귀신 집》에 불을 부친 것은 상호였다. 이 소식을 들은 상호 어머니는 무척 걱정했다. 귀신이 성을 내서 아들에게 천벌이라도 내릴런지 모르겠다고 며칠 동안 걱정이 대단했다. 그러나 상호는 천벌은 고사하고 감기도 걸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믿을 수 있게 되였다.

닥나무 아래에 있는 《귀신 집》을 불사른 후부터 이 나무 아래는 아이들의 좋은 놀음터로 되였다. 책을 보는 아이, 씨름을 하는 아이들, 그네를 뛰는 아이들이 언제나 그치지 않았다.

아동단원들은 이 나무를 놀음터로만 리용하지 않았다. 이 나무를 중요한 보초선으로 리용했다. 닥나무에 올라 가면 팔도구로부터 이리로 오는 길이 손'금처럼 빤히 바라다 보이고 상촌, 중촌, 하촌이 한눈에 바라 보인다. 아동단원들은 여기서 노는 척하면서 교대로 나무에 올라 간다. 그들은 거기서 사방을 감시하는 것이였다.

상호 차례가 돌아 왔다. 그는 나무에 올라 가서 제법 노래 곡조에 맞추어 피리를 불며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때에 팔도구 쪽에서 양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분주히 닥나무 쪽을 향하여 걸어 오고 있었다. 상호는 재빨리 《아리랑 타령》 곡조를 불렀다. 이 곡조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신호였다. 상호의 피리 소리를 들은 항배는 분주히 마을로 달려 갔다. 그는 야학방에서 글을 쓰고 있는 최 선생께 알렸다. 최 선생은 글 쓰던 것을 지하실에 숨기면서 나타난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똑똑히 감시하라고 타일렀다.

젊은이는 닥나무 앞을 지나 하촌으로 들어 섰다. 상호는 그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라 보고 있었다.

그는 어느덧 상호네 집 앞에 가서 우뚝 섰다. 그리고는 누구를 찾는 것 같았다. 조금 후에 상호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 젊은이는 상호네 집으로 들어 갔다.

(웬 사람일가? 우리 집에는 양복쟁이가 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한데!)

상호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이때에 항배가 닥나무 아래에 나타났다. 상호는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다.

《그 사람 어디루 갔니?》

하고 항배가 먼저 물었다.

《우리 집으루 들어 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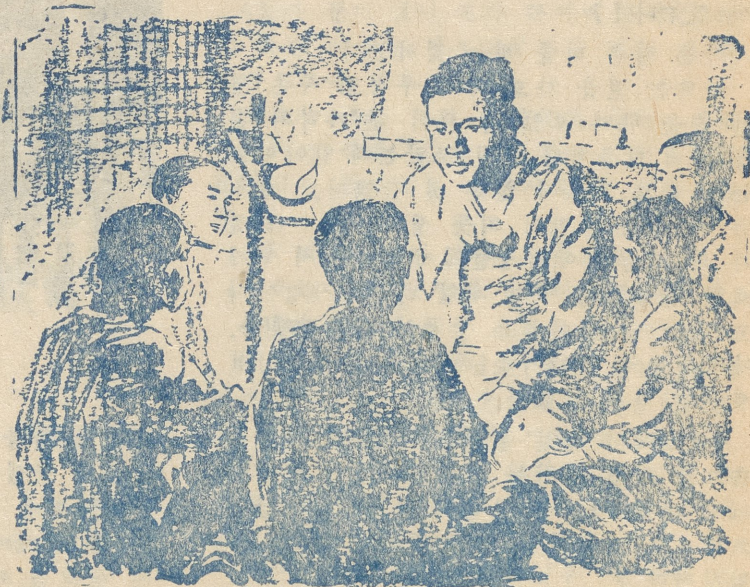
상호도 이상하다는 듯이 량미간을 찌프리며 대답했다.

《너의 집으루?》

항배는 상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 보았다. 그게 누구냐고 묻는 것 같았다.

《응! 그런데 누구인지 모르겠어! 내가 갔다 올가?》

《응 그게 좋을거야. 내가 올라 가서 감시하구 있을게》

상호는 집으로 달려 갔다. 문 앞에는 어머니의 해진 짚신과 반짝하는 남자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상호는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새 구두는 어머니의 짚신을 깔보는 것만 같았다. 우선 구두를 멀리 내던지고 싶었다. 그런 구두는 자기네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직접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남의 로력으로 만들어진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입니다.》

만 갈앴다.
상호는 숨 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어머니의 웃음 소리가 흘러 나왔다.
—아는 사람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상호는 문고리를 잡았다. 방안에는 27～28세 가량 되여 보이는 손님이 아래'목에 앉아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머리에는 기름을 짤짤 바르고 은테 안경을 번쩍였다. 이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딴 나라 사람처럼 생각되였다. 상호는 어디서 본 사람 같기는 했으나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인사 드려라 연길에 있는 너의 이모 사촌 형님이다.》
상호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매우 반가운 낯으로 손님을 소개했다. 상호는 그제야 어렴푸시 생각났다. 다섯 해 전 상호가 아홉살 먹는 해 봄이였다. 그때 상호네는 범바위'골에서 살았다. 그때에 사촌 형이 잠간 들린 일이 있었다. 그 후에는 영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상호는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무릎을 꿇며 코가 땅에 닿도록 조선 절을 했다.
《아니 네가 상호냐? 야 그거 몰라 보게 컸구나!》
사촌 형은 혀를 채는 것이였다.
상호는 절을 하고 나서 무심코 사촌 형의 손을 바라 보았다. 새끼 손'가락의 손톱이 매 발톱처럼 길게 조았는데 일이라고는 조금도 해보지 않은 것 같앴다. 상호는 최 선생의 말이 피뜻 생각났다. 언젠가 최 선생은 야학생들에게 세상에서 누가 제일 훌륭하며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구구하게 대답했다. 야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직접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남의 로력으로 만들어진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입니다.》
최 선생의 말을 생각하며 상호는 사촌 형의 얼굴을 다시금 바라 보았다.
—사촌 형은 어떤 사람일가?—

아무리 바라 보아도 우리 편 같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때에 사촌 형은 가죽 가방에서 무슨 통을 하나 꺼내 놓았다.
《과자 먹어라》하며 상호 앞으로 밀어 놓는 것이였다.
《그게 무슨 과자야요?》
상호는 과자통을 들여다 보며 물었다.

《아동단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비밀을 [illegible]입니다. 비밀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동단을 누가 지도하느냐 하는 비밀입니다…》

《정말 불쌍하구나, 아직 비스케트도 먹어 보지 못했냐?.》
사촌 형은 굵고 흰 물뿌리를 꺼내더니 담배를 부치며 상호를 바라 보는 것이였다. 상호는 이 말에 약간 불쾌했다. 큰 모욕이라도 당한 것 같애서 과자 통을 탁 차버리고 뛰여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사촌 형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로 왔는지 알 수 없을 것이였다. 그는 불쾌한 감정을 억지로 눌러 버렸다.
《비스케트란게 어떤거냐?》하며 어머니가 과자 통을 뜯었다. 과자는 새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짐승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물'고기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꽃 모양으로 된 것들도 있었다. 어떤 과자에는 흰 사탕이 붙은 것도 있었다. 어머니는 뜯어 놓은 과자 통을 손님 앞에 내놓았다.
《자 자네두 하나 들게만.》
《어서들 드시우 나야 이보다 몇배 더 좋은 고급 과자를 늘 먹는데요.》하며 손님은 담배 연기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였다.
상호는 어머니가 집어 주는 과자를 입에 넣었다. 강낭 밥도 배 불리 먹지 못하는 상호는 과자를 와작와작 씹어 먹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과자를 입에 넣고 녹이고 있었다.
《상호도 학교에 보냅니까?》
하고 어머니께 물었다.
《돈이 있어야 학교에도 보내지 않겠나》
어머니의 대답이였다.
《그럼 그저 놀구 있는가요?.》
《그러니 하는 수 있어야지.》
어머니의 대답은 무척 쓸쓸했다.
《상호도 그럼 농사를 시킬 작정입니까》
《그래야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가?》
이 말을 들은 손님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
《녀 팔도구로 가자. 내 주재소나 상점 같은 데 붙여 줄게.》
상호는 속으로 픽 웃었다.
—제일 미운 놈들이 그놈들인데 그놈들 앞에서 심부름을 해?—
상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상호는 그렇게 쏘아 부치지는 않았다. 이런 기회에 물어 보면 사촌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상 싶었다.
《순사들을 잘 아서요?》
하고 슬쩍 물어 보았다.
《알다 뿐이 겠니 내가 한마디 부탁만 하면 다른 사람을 내보내구라두 너를 써 줄게다. 그래 가보겠냐?》
상호는 사촌 형이 순사들과 무척 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물어물 했다가는 팔도구로 나가자고 할 것만 같앴다.
《좀 더 큰 데에 붙여 주서요.》
상호는 슬쩍 이렇게 미끄러치고 말았다.
《아직 어머니 젖이 그리운 모양이지?》
이렇게 말하며 손님은 껄껄 웃는 것이였다. 상호도 빙긋 웃으며 과자를 몇 조각 들고 웃방으로 올라 가고 말았다.
《아직 그 애는 철이 없다네 그런데 소개해 주었다가 집으로 달아나 오면 자네까지 딱하지 않겠나.》
어머니의 말이였다. 손님은 그 말이 옳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며칠 놀다 갈 수 있겠지?.》
《글쎄요. 이모네 폐가 되지 않을가요?》

《원 별 소리를 다 하는군 내 나가서 점심을 지어 올게.》

《아니 집에서 먹구 왔습니다.》

《집이라니?》

《우린 며칠 전에 팔도구로 이사 왔다우.》

《그래? 난 아직 연길에 있는걸루만 알았구만》

《가끔 집에 놀러 오서요.》

《놀러 다닐 짬이 어디 있나 집 말길 사람두 없구.》

《아니 상호가 있지 않아요.》

《에그 말두 말게 그 애녀석이 어디 집에 붙어 있다더냐 어디를 싸다니는지 내 원 참….》

어머니는 머리를 쑥쑥 긁는 것이였다.

《여기 애들두 그래요? 우리게 아이들 두 밤이면 모여서 불들을 놓구 야단들이 타우.》

《에그! 말해서 뭘하겠나 요전엔 글쎄 대감 집(귀신 집)에 불을 다 놓았다네, 밤마다 모여서 무슨 쑥떡 공론을 하는지 모르겠대두.》

《저희들끼리 그러지는 않겠지요?.》

손님은 담배 연기를 천장으로 내뿜으며 태연히 물었다.

《아이놈들끼리 그렇게 뭔가, 선생이 있지.》 웃방에서 글씨 련습을 하는 척하며 이야기를 엿듣던 상호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건 누가 지도하는가요?.》

《최 명철이라는 야학 선생의 충동이지! 글쎄 글을 배워 주는건 좋은데 밤'중까지 아이들을 잡아 두구 뭘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이 말을 들은 상호는 깜짝 놀랐다. 그의 머리에는 최 선생의 말이 번개처럼 지나 갔다.

《아동단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밀은 생명과도 바꿀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동단을 누가 지도하느냐 하는 것도 비밀입니다…》

이 말은 상호가 아동단에 입단하던 날 선생이 맨 처음으로 하던 말이였다. 이날 상호는 비밀을 목숨으로 지킬 것을 굳게 맹세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비밀을 루설하고 있지 않는가. 상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 보았다. 시선이라도 마주치면 눈'짓으로라도 그런 말을 그만 두라고 신호하겠는데 어머니는 사촌 형의 얼굴만 바라 보며 성수가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상호는 그런 말을 그만 두라고 소리치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 났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비밀이라는 것이 더욱 두드러질 것 같았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이는 본시 이 마을 사람인가요?》

《아니! 짠도만서 왔다나봐.》

이 말을 들은 손님은 깊은 무슨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다. 약간 량미간을 찌프리더니 머리를 끄덕였다. 상호는 그의 태도와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온 신경을 몰고 있었다.

사촌형은 담배'불을 끄더니 포케트에서 손'바닥 절반만한 수첩을 꺼냈다. 그는 수첩에 달려 있는 가느다란 연필로 무엇인가 적어 넣는 것이였다. 연필 놀리는 것으로 보아 두 서너자나 겨우 썼을가 싶었다. 그는 수첩을 다시 포케트에 넣는 것이였다.

상호는 가슴이 울렁울렁했다.

—거기다 무엇을 써 넣었을가—

달려 내려가서 빼앗아 보고 싶었으나 그럴 수도 없었다. 그것은 일을 망그러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호의 머리는 복잡해 졌다.

—그러면 우리 사촌형이 일본놈의 앞잡일가? 우리의 친척인데 그럴 수 있을가? 그렇지는 않을거야—

상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비스케트보다 더 고급 과자를 늘 먹는다느니 자기 부탁이면 꼭 써 줄 것이라느니—하는 것이 모두 이상한 말들이였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살고 있을가? 그리고 순사와 친하다니 그것이 놈들의 앞잡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상호는 생각하면 할수록 의문이 커가기만 했다. 더구나 수첩에 무엇을 써 넣는 것을 보니 더욱 이상스러웠다. 자기로서는 똑똑히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오늘'밤에 최 선생을 만나서 모든 것을 말하리라고 생각했다. (다음 호에 계속)

귀중한 열매

—함북 김책군 업억 중학교 대에서—

글 최 죽산　　　그림 김 익주

금년 초까지만 하여도 이 학교 아이들은 실속 있는 학습을 하지 못한 데로부터 학과 성적이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더욱 뒤떨어 졌던 과목은 물리와 화학이였다.

《기술이란건 초급 중학교를 졸업한 후 기술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어.》

이것은 정룡이와 송금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의 생각이였다. 그런가 하면 1분단 군옥이 같은 아이들은 기술만 배우면 된다고 하면서 숙제를 하여 오지 않거나 혹은 학습을 게을리 하였다.

물리 시간이였다. 발전기 회전자 앞에 선 정룡이는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기만 하다가 끝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들어가 앉았다. 그는 노트에 필기한 것은 곧잘 외웠고 공작실에 서는 아는 체만 하고 생산 실습에는 눈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익혀 나가는 데 커다란 방해가 되였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정룡이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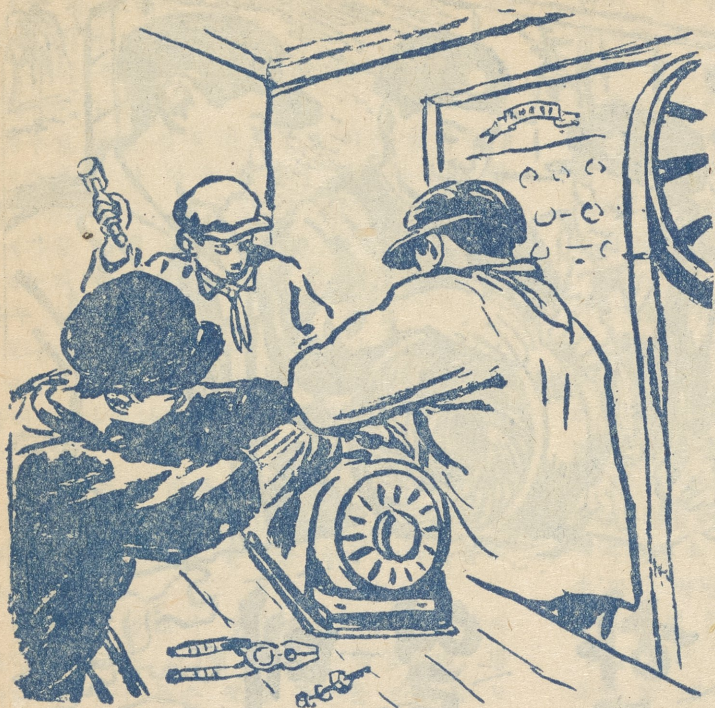
그리하여 대에서는 그릇된 학습 태도를 고치고 배운 지식을 생산 실습을 통하여 더 잘 익히기 위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게 되였다.

학교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질 좋은 흑연이 생산되고 있었다.

화학 시간에 탄소의 공업적 용도를 배운 아이들은 이 질 좋은 흑연으로 무엇을 만들어 볼 수는 없겠는가를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었다.

낡은 학습 방법을 고치고 생산 실습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더 잘 익혀 나가기 위한 대 모임이 있은 날이였다.

이날 모임에서 많은 동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최 정룡의 이야기였다. 그것은 연필 공장을 만들자는 것이 였다.

대에서는 아이들의 한결같은 제의를

지지해 주었다.

막상 착수하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였으면 좋을지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손'재간이 좀 있다고 하는 군옥이와 진규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은 무턱대고 집부터 지어 놓고 보자고 덤비였고 경룡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은 연필 공장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장을 만드는 일은 시작되였다. 아이들의 기특한 발기에 감격한 후원단체와 학부형들은 그들을 도와 전기'줄과 제재기 등을 마련하여 주었다. 드디여 일은 시작되였다. 그러나 이들 앞에는 뜻하지 않은 난관들이 부닥쳤다.

로라의 시험 운전 날이였다. 모타가 제대로 돌아 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로라는 제대로 돌아 갈 수가 없었다. 교반(반죽)이 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원인을 밝히기에 애썼다.

《이젠 모타도 얻을 곳이 없는데 차라리 못 공장을 만드는게 어때?》 의지가 약한 리 원수는 첫 실패에 맥이 풀려 연필 공장 대신 못 공장 건설을 제기했다.

《첫 실패에 물러설 수 없다. 공장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되겠니. 우리 혁명 선배들이 연길 폭탄을 어떻게 만들어 냈는가를 생각해 봐.》리 원수를 바라보는 정룡의 두 눈은 끝까지 하고야말 결심으로 빛났다.

아이들은 저녁 늦게까지 원인을 해명하려고 애썼다.

모타가 제대로 돌아 가지 않은 원인은 회전자의 고장에 있었다.

이때 정룡이는 회전자를 쥐고 이러쿵 저러쿵 장황하게 《리론》을 늘여 놓았지만 회전자의 고장 원인은 밝히지 못하였다.

정룡의 마음은 안타가움으로 천근만근 무거워 지는 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물리책과 참고 서적들만 뒤적이며 아무 말도 없었다. 회전자를 한참이나 손질하던 진규가 《알았다!》라고 고함을 쳤다. 아이들은 우루루 진규 곁으로 모여 들었다. 《이것봐, 코이루가 잘 접촉되지 않았거든》하고 진규는 아이들에게 고장난 곳을 보여 주었다. 《야— 거기가 고장이로구나 물리 시간에 배운 문제인데 그것도 알아 내지 못했구나.》 회전자의 고장난 곳을 유심히 들여다 보던 춘남의 말이였다.

스위치를 넣었다. 모타는 제대로 회전하였다. 아이들은 고장났던 곳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하여 달라고 진규에게 졸라댔다.

진규는 고장을 고치기는 하였으나 막상 연필을 쥐고 회로를 그리자니 학습 시간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관계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때처럼 진규는 부끄러워 본 때는 없었다.

《경룡아 너 좀 설명해 보렴》정룡이는 곁에 서 있는 경룡이에게 말하였다. 붉어진 낯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면서 경룡이는 그림을 그려 가며 조리있게 설명하였다.

진규는 자기가 아이들에게 알려 주지 못하는 것이 몹시 부끄러웠다.

《봐 진규의 손'재간과 경룡의 리론을 합치면 얼마나 좋은 기술이 되니.》

정룡이의 말은 아이들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이때로부터 진규는 수업 시간이면 선생의 이야기를 주의 깊이 귀담아 들었다. 그리하여 이번 물리 시험에선 우등까지 하게 되였다.

경룡이도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익히기 위하여 매일 학습에서, 공작실과 새로 건설되는 공장에서 열심히 배우며 일하였다.

로동을 달가와 하지 않던 송금이도 아이들의 줄기찬 로력에 감동되여 잘못을 깊이 깨달은듯 교반기에서 열심히 일하였다. 그는 어지러운 일이라면 갖은 핑계를 대고 집으로 가군 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도 이제는 옛'일로 되였다. 오늘 그는 로동이 얼마나 값 있는 것인가를 가슴 깊이 깨달았다.

압심기도 되였고 소성로도 되였다. 말썽만 부리던 압심기에선 연필심도 후려짐이 없이 제대로 뽑혀져 나왔다.

심을 소성한 그날 저녁으로 합작 작업을 걸쳐 첫 연필이 만들어 졌다.

《야! 이게 우리 학교에서 만든 연필이래》 인민반 어린 동생들은 깡충깡충 뛰며 좋아 하였다.

《정말 멋 있는데 〈강계 연필〉보다 못하지 않아》 연필을 쥐고 아이들은 모두 기뻐 날뛰였다.

그러나 연필을 만든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고심스럽게 만든 연필은 자주 부러지기만 하였던 것이다.

아이들은 소성로 주위에 모여 종일 원인을 해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집으로 흩어져 갔다.

정룡이는 그날 밤 늦도록 도서실에서 가져 온 참고 서적들을 읽었다.

심이 부러지는 원인은 배합을 잘 하지 않아서이거나 압심기에 먼지가 있어서가 아니였다. 원인은 소성을 잘 하지 못한데 있었다. 고열 측정기가 없어 눈'짐작으로 소성을 하였던 것이다.

정룡이는 문득 지난 화학 시간에 《원소의 융점》을 배운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다 동을 녹여 보자 동은 950도 이상일 때 녹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룡이는 동(구리)이 녹는 다는 것은 소성 온도가 950도 이상 됨을 말하여 주는 것임을 깨닫고 그대로 하여보았다. 그리하여 두번째 소성에서 나온 심은 강도가 훨씬 좋았다.

이들의 줄기찬 노력은 드디여 열매를 맺았다. 어렵다고만 생각해 오던 물리 화학 시간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재미 있고 흥미 있는 시간으로 되였다. 물리, 화학 과목의 우등, 최우등생은 70%로 늘어 났다.

오늘 이 학교대 소년단원들은 새해에는 교육과 생산 로동을 더 잘 결합하여 강계 연필 공장 아저씨들이 선물로 보내준 기계들로 공정마다 기계화, 자동화하여 화학 연필과 색연필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연필들을 많이 만들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참된 소년단원으로 자라나는 이들의 가슴 마다에는 보다 더 공부를 잘하며 일에도 열성을 내리라는 굳은 결심과 희망으로 들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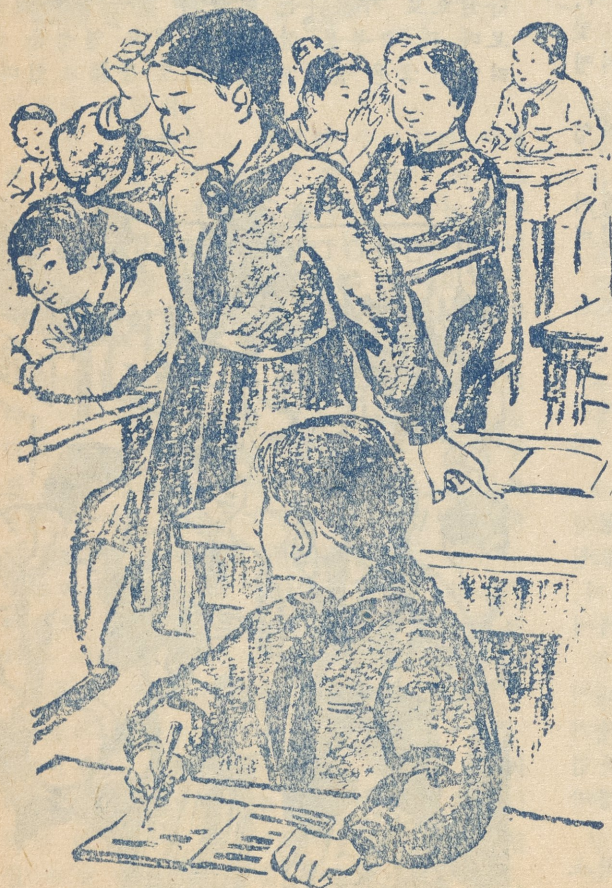
반 생활의 하루

그림 리 전영

영자야! 너의 반이 분단 학과 실력 시험에서 일등을 했다지…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그런데 우리 반의 하루 학습 생활을 또 전해 달라구?… 이젠 학교에서두 으뜸가는 모범 반으로 만들 생각인가부지, 너는 정말 욕심쟁이구나,

영자야! 이 말은 롱담이구 너의 부탁 대로 우리 반의 하루 생활을 이야기 해 주마, 길게 쓸 필요없이 오늘 하루 생활을 이야기 하겠어,

영자야! 나는 오늘 학습 시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

아침 첫 시간에 로어를 학습했는데 우리 반 김 정희라는 동무가 일어나 번역을 하게 되지 안았겠니, 그런데 글쎄 번역을 해 내려 가다가 단어를 몰라 자꾸 맥히군 하지 않겠니, 그 아이가 맥힐 때마다 왜 그런지 내 얼굴이 화끈 달아 올라 겨우 앉아 있었어 우리 반 동무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우리 반과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3반 동무들은 《최우등 반이 오늘은 망신하는구나》하는 낯으로 빙글 빙글 웃어 주지 않겠니, 나는 말은 안했지만 속으로는 약이 오르고 기분이 나빠서 겨우 앉아 있었어… 그런데 또 수학 시간에 지명을 받은 정 성덕 동무가 허튼 대답을 해서 분단 동무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겠니

방과 후 총화 시간에 분단 위원장 신계화 동무는 《모범 반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서 반 생활을 잘 조직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하지 않겠니!

이런 말을 들은 나는 안타깝고 분한 나머지 정희와 정덕이가 미워나기까지 했어.

우리 반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단 말이냐 글쎄.

이런 일은 일찌기 우리 반에 있어 본 일이 없었단다.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반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를 들어보면 알거야 우린 저녁이면 아담하게 반실로 꾸며 놓은 일숙이네 사랑 방에 모여 과외 시간을 얼마나 보람있게 보내군 했겠니.

먼저 반실에 도착한 동무들은 반실에 있는 재미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동무들이 모이기를 기다린단다. 동무들이 다 모이면 그날 숙제부터 시작한단다. 숙제도 서로 토론해가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 그 다음은 그날 배운 문제를 복습하면서 잘 리해하지 못 한 문제들은 서로 묻고 토론해, 우리는 배운 것을 모두 자신있게 알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한단다. 실험해야 할 문제는 학교 실험실에 모두 같이 가서 실험해 보기도 하고 학습 문제를 놓고 질의 문답도 하며 자기가 쉽게 리해한 경험도 이야기 해 주는 등 이렇게 날마다 더 좋은 학습 방법으로 학습하기에 노력한단다.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재미있는 유희와 오락도 하고 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생활도 조직한단다. 혹시 집에 일이 있어 반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동무들에 대해서는 반 동무들이 모두 가서 도와 주군 했어, 그리고 집이 반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무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조까지 조직 하였단다.

반 동무들은 모두 반 생활에 취미를 부치여 누구 하나 반을 떠나 행동하려는 동무는 없었어, 때문에 반 동무들 모두가 빠짐없이 학습 준비와 복습도 충분히 해가지고 학습에 참가하고 있단다. 그리고는 그날 배운 것은 그날에 꼭 알고 지낸단다. 때문에 지난 학년말에 우리 분단의 우등, 최 우등 수는 85%였는데 우리 반은 100% 우등 최우등의 성적으로 모범 반으로 되였단다. 그래 다른 반 동무들이 견학도 자주 왔단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반 생활 하는 것을 와 보시기도 하고 반실을 꾸리라고 종이도 사다 주고 책도 사다 주군 한단다.

그런데 글쎄 오늘은 그게 무순 망신이겠니.

생각할 수록 화가 났지만 나는 마음을 가라 앉히고 방과후 교실 한구석에서 반 모임을 가지기로 했어, 그래 정회와 정덕이가 오늘 학습 시간에 뒤떨어진 원인을 찾아 봤어, 알고 보니까 정회는 어머니가 갑자기 앓아서 밤 늦도록 의사를 모셔 오며 어머니를 간호하느라고 로어 단어를 5 개나 외우지 못하지 않았겠니. 영회는 평양에서 온 형님이 사다준 그림 책을 시간 중에 몰래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 우리는 애로가 있으면 제때에 반 동무들에게 말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정희를 타일렀고 학습에 불성실하게 참가한 정덕에겐 단단히 주의 주었어, 그리고 오늘 반 생활에서는 두 동무의 뒤떨어진 학습을 꼭 해결하자고 약속했단다.

그래 반실 벽보를 책임진 김 정숙 동무는 동무들 보다 일찍 와서 《정희 동무와 정숙 동무의 학습을 어떻게 도와 줄가요? 생각해 두었다가 의견들을 말하십시요》하고 크게 써서 벽보판에 붙였단다.

그래 우리는 복습이 끝난 후 동무들의 의견을 물었어! 어떤 동무는 정회 동무 네 집 책상 앞에 5 개의 단어를 크게 써 붙여주자고 하였고 어떤 동무는 정덕이가 리해하지 못한 산수 문제를 가지고는 학과 토론회를 하자고 의견들을 내 놓았단다. 그래 정회 동무의 로어 학습을 위해서는 오늘 외우지 못했던 로어 단어로 《가루다》를 만들어 오락 시간에 놀도록 하고 정덕 동무의 산수 학습은 곁집에 가까이 사는 김 일숙 동무가 책임지고 잘 가르쳐 주기로 했단다.

그래 오늘 오락회는 정회를 중심으로 해서 놀았어, 그리고 정덕이와 일숙이는 휴식 시간에도 쉬지 않고 마주 앉아 산수 문제를 토론했단다.

반 생활을 다 끝내고 정회와 정덕의 학습 정형을 알아 보니까 아주 자신있게 리해하고 있었어.

정덕이와 정회는 물론 반 동무들 모두가 기뻐했고 나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기분 나쁠 때 같에서는 속이 상하더니 서로 도와 훌륭한 결과를 맺고 보니까 오늘 하루의 반 생활도 유쾌하고 보람있었다구 생각돼.

래일 학습 시간이 돌아오면 비웃어 주던 3반 아이들은 다시 지난날과 변함 없이 우리를 우러러 볼거야, 동무들과 헤여져 집에 돌아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면서 나는 앞으로 우리 반을 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 결심을 다지고 있어.

우리는 서로 편지로 친해진 동무이지만 서로 사업의 성과를 기뻐해 주고 사업 경험을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동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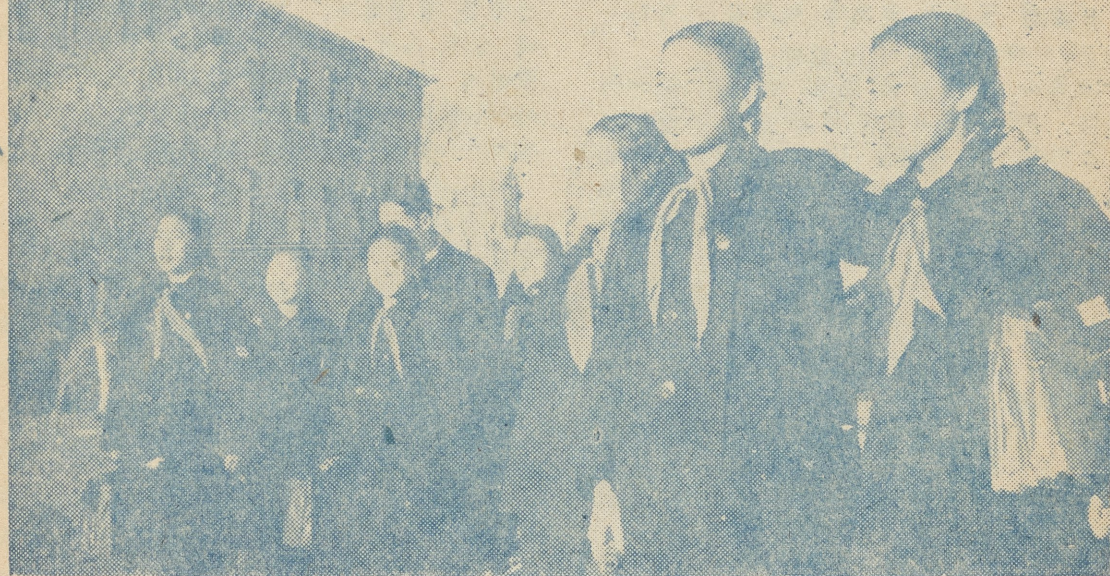
영자야! 우리 약속하자! 너는 면 황북 린산 상암 중학교에서 너의 3분단 5반을 으뜸가는 분단으로 만들고 나는 이곳 평남 순안 구서 중학교에서 으뜸가는 반을 만들자, 그래 누가 더 훌륭한 반으로 만드나 내기하자구…

오늘은 별로 훌륭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 했구나, 다음에는 보다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마.

다정한 영자야!

오늘은 이만 한다.

평남 순안군 구서 중학교 4분단 1반 반장

김 균녀로부터

— 평양시 창덕 학교 대 제 20 분단에서 —

글 조 병권 사진 김 창규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이 나서 자라신 칠골—여기에 창덕 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바로 이 학교가 김 일성 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공부하신 학교인 것이다. 지금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원수님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되기 위하여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훌륭히 하고 있다.

× ×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보슬비는 아침녘이 되자부터 창'대 같은 비'줄기로 변하였다.

아직 상학종이 울리기까지에는 40분 남짓한 시간이 있었다.

벌써 30분 전에 학교에 온 분단 위원장 주 영자와 대 열성자 김 덕순을 비롯한 몇몇 동무들은 창문'가에 우두커니 서서 등교하는 동무들을 번갈아 살피고 있다.

《에이 비두 좀 멎지 않구 오늘 아침엔 지각생이 많게 됐어.》

덕순이는 억수로 퍼붓는 비를 원망스럽게 바라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최 경자 하구 한 순봉이는 또 지각하게 됐어.》

《지각이나 하면 좀 낫지, 인제 보렴 그 애들은 오지도 않아.》

하고 미리부터 경자와 순봉이는 틀림없이 결석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축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니야 경자는 꼭 나와, 분단 벽보에 나붙은 그애의 글을 읽어 보지 못했니.》

하면서 온다고 우기는 축도 있었다.

비는 여전히 퍼붓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등교하는 소년단원들의 무리가 교문이 메여지듯 꼬리를 이어 들어 오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되여가는 데도 이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경자와 순봉이의 얼굴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저게 경자가 아니야?》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웨치듯 말했다.

《응? 옳아 경자구나 순봉이도 오누나.》

영자는 너무 기뻐 막 그를 맞받아 나가려는듯 창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다. 그러자 경자는 고개를 번쩍 들고 창문'가에 섰는 영자를 보고 빙긋 웃음을 띠웠다.

이들이 경자의 등교를 이처럼 기뻐하는 데는 이러한 사연이 있었다.

개학이 된지 얼마 안된 어느날 아침이였다. 첫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뜨트룽》하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바람에 누구랄 것 없이 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경자가 들어선 것이다. 그는 개학된지 얼마 안되는 동안 벌써 두번의 결석을 했고 지각은 거의 매일이나 다름 없었다.

(또 지각이구나)

영자는 경자를 흘끔 돌아다 보고 나서 그 무엇을 마음 속에 다졌다. 그 이튿날 영자는 《지각 대장 최 경자》라는 만화와 함께 경자의 그릇된 점을 비판했다. 그랬더니 도리여 다음 날부터는 학교에 나오지도 않았다.

영자는 가뜩이나 학교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동무들을 그런 사업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한 자기 생각이 잘못이 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영자는 분단 위원회가 경자가 자각적으로 공부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로동당 력사 연구실》을 통하여 그에게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의 학습 방법, 김 일성 원수님의 모교에서 공부하는 영예, 혁명 투사들이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난관을 이겨가며 싸우셨는가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

먼저 분단에서는 모임을 열고 국립 해방 투쟁 박물관 칠골 분관장 아저씨를 모셔다 김 일성 원수님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공부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열성자들은 자주 틈을 타서 김 일성 원수님의 생가를 방문했을 때 외삼촌께서 들은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경자에게 들려 주군 했다.

이리하여 경자를 비롯한 몇몇 동무들이 전에 비하여 결석 지각하는 일이 퍽 드물게됐다. 분단 위원회는 계속 그들에게 공부 시간에 늦거나 빠지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학습에 손해인가를 타일러 주었다. 그런데 경자에게는 학습에서 또 하나의 나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숙제를 해 오지 않는 버릇이였다. 그는 늘 휴식 시간이면 남의 노트를 빌려다 두었다가 공부 시간에 다음 시간 학과목 숙제를 베끼느라고 그에 정신을 팔군했다. 그러므로 영자는 경자네 집에 가서 그의 학습을 친절히 도와주면서 경자더러 숙제는 제힘으로 풀어야 한다고 여러번 타일러 주었다. 그러나 경자는 종내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어느날 분단에서는 김 일성 원수님의 외삼촌과 상봉 모임을 가지고 김 일성 원수님이 어린 시절에 숙제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성주(김 일성 원수님의 어렸을때 이름)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숙제부터 해 놓고야 놨단다. 동무들이 찾아 와서 병정놀이를 하자고 자꾸만 졸라도 숙제를 끝마치기 전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단다. 성주는 놀음을 잘 조직했는데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는 놀음에도 넣어 주지 않았단다. 그러나 숙제를 다하고 오면 기뻐서 그를 놀음에 넣어 주군 했지. 성주는 누가 숙제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을때면 찾아가서 친절히 가르쳐 주군 했단다. 그리고 숙제는 반드시 제힘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르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알때까지 가르쳐 주어 그 애가 제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돌아 오군 했단다…》

이 상봉 모임이 있은 후 경자와 많은 동무들은 공부를 게을리 하던 버릇을 고치기 시작하였다. 분단에는 학습 열의가 높아 갔다. 그러나 아직 수학, 로어 등 과목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곧 열이 식군 하였다. 영자는 이런 동무들에게 아동단원들이 난관을 이겨낸 이야기를 찬찬히 들려 주군 했다.

어느날 영자는 경자더러 《소년단》을 내주며 혁명 투사 황 순희 선생이 쓰신 《김 일성 수상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다》에서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를 읽고 느낀 점을 써 오라고 했다. 경자는 그날'밤 그 글을 읽고 지난날 학습에 게을렀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이야기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정말 똑똑히 알았습니다. 나도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하여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받아 훌륭히 공부하겠습니다.》

경자의 이 글은 분단 벽보에까지 게재되였던 것이다.

《옷이 젖지 않았니?》

영자는 경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 ×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받아 그처럼 생활하는 이들은 언제 어데서나 항상 웃어른을 존경하며 어린 동생들을 사랑하며 예절을 잘 지키여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얼마전 어두운 밤이였다. 동무네 집에 놀러 갔다 돌아오던 김 덕실이와 지 련화는 행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밭 가운데서 해매이는 웬 늙은 할머니 한 분을 보았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5리쯤 떨어진 궁골동에 계시는 할머니였다. 친척네 집을 방문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이였다. 그런데 70세가 넘은 늙은 할머니여서 어둡게 되자 그만 길을 잃었던 것이다.

덕실이와 련화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을 찾아 떠났다.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가는 도중 대동 식료 상점에 들려 사탕과 과자를 사서 이들에게 주었다. 이들은 할머니의 권고에 못'이겨 몇 개 먹고 나머지는 할먼네 집에 가서 손자들에게 할머니의 선물이라고 내놓았다.

다음날도 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다 마을에 오시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다 주었고 길을 친절히 안내해 주어 칭찬을 받았다.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웃어른을 존경하며 어린 동생들을 사랑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이렇듯 이곳 소년단원 동무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모교에서 공부하는 영예를 간직하고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김 일성 원수님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되기 위하여 학습에서도 소년단 생활에서도 항상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 황남도 해주 교원 대학 부속 중학교 대에서 —

글 김준규

장수산에 노을이 붉게 타는 저녁 무렵이다.

소년단원들의 힘찬 노래 소리가 가까워 온다. 붉은 넥타이를 자랑스럽게 날리며 해주 교원 대학 부속 중학교 6분단 동무들이 찾아 온것이다.

두 분의 영예 군인 아저씨들이 뛰여 나와 소년단원들을 반가히 맞는다.

이들은 파지와 파유리를 모아 온 것이다. 파지와 파유리는 해주 영예 군인 문방구 공장의 중요한 원료이다.

파지를 용해시켜 풍경화의 모형판을 만들고 파유리로는 아름다운 구슬을 만들고 있다. 지난 9월부터 2 개월 동안에만 하여도 소년단원들은 2 톤의 파지와 60 kg의 파유리를 모았다.

《우리 공장과 소년 단 원 들은 한집안이나 다름 없습니다》.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열성자 대회에 참가 하였던 리 종전 지배인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년단원들의 기특한 일들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였다.

금년 봄 따뜻한 어느 일요일이였다.

아동 공원에 꽃씨를 뿌리고 돌아 오던 천광훈, 정 성원 동무들은 공장 옆에 쌓인 폐물들을 치우고 있는 영예 군인 아저씨들을 발견하였다. 소년단원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곧 아저씨들의 일'손을 도와 공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어린 아까시야 나무까지 떠다가 심어 드렸다.

아저씨들은 저마다 두 소년단원들의 손을 힘껏 잡아 흔들어 주었다.

두 동무는 집으로 돌아 오며 곰곰히 생각하여 보았다.

불편한 몸으로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움직이고 있는 아저씨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어쩌할 수 없었다.

그 이튿날 두 동무는 영예 군인 아저씨들을 도울 데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대위원회에 말하였다.

그날 저녁 대 열성자 모임에서는 영예 군인 아저씨들과의 상봉 모임을 가질 것이 의논되였다.

첫번 상봉 모임에서는 김 기석 아저씨에게서 마흔 두 개의 화점을 까부시면서 851 고지를 점령하던 이야기를 들었다. 아저씨는 넓직한 가슴에 전사 영예 훈장 1급과 군공 메달을 빛내이면서 한 개 소대의 력량으로 천 명도 넘는 원쑤놈들을 섬멸하던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하였다.

이러한 용감성을 발휘 하게 된 것은 항상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이 심장에 고동쳤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늘 더 훌륭히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이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이라고 말씀하였다.

이 이야기는 소년 단원들의 마음을 격동 시켰다.

전투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운 아저씨는 오늘엔 생산으로 조국에 이바지하고 있다. 몸은 비록 불구로 되였지만 가슴 속엔 애국심이 더욱 세차게 불타 오르고 있다.

이 공장이 생긴 것은 1957년도 여름이였다. 그때는 공장 건물도 변변치 않았으며 기계 설비도 잘 갖추어 지지 않았었다. 아저씨들은 밤과 낮을 이어 더 빨리 더 질 좋은 학용품들을 만들어 공부하는 아이들을 기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손을 다그쳤다.

이렇게 하여 공장을 짓고 제본반, 나염반, 공예품반을 비롯한 직장들을 차려 놓았다. 공장을 짓는 일에는 소년단원들의 힘도 적지 않게 들었다.

소년단원들은 《꿀벌 운동》을 전개하여 널판자와 못을 모아 왔으며 기초 작업에 필요한 돌도 날랐다. 김 순자 동무네 분단 동무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천 봉준 작업반 아저씨들이 일하는 제본반에 찾아 가서 일'손을 돕고 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학습장과 수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소년단원들은 불편한 몸으로 제품을 나르는 아저씨들을 도와 함께 나르기도하고

아저씨들 사이에 끼여 앉아 풀칠도 하면서 학습장을 만들고 있다. 또한 학교의 연예 써클원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노래와 무용을 가지고 자주 아저씨들을 찾아 가서 위안 공연도 해 드리군 한다.

소년단원들은 이 공장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의 공장》, 《우리 아저씨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순자 동무네 분단 동무들은 아무 때라도 공장에 가면 제법 주인처럼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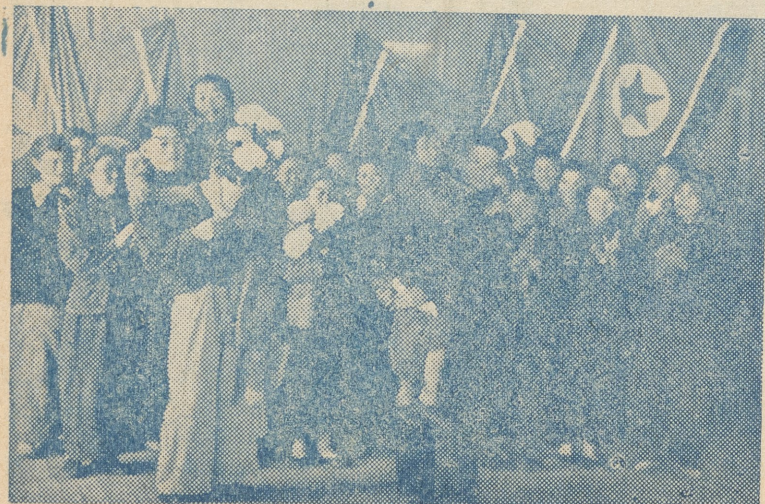
김 기석 아저씨가 일하고 있는 청년 작업반 아저씨들은 여러가지 공예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아저씨들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잉크병, 고급 벽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정 태정 동무를 비롯한 미술 크루쇼크원들은 이 작업반 일을 도우면서 채색법을 배우고 있다.

더우기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그림은 별'빛 찬연한 해방탑 우로 평화를 노래하며 나래치는 비둘기다.

김 기석 아저씨는 이 그림을 소년단원들과함께 자주 보며 아름다운 래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년 서른에 나는 이 아저씨는 지금 근로자 중학교 2학년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 아저씨는 열 아홉살 때 까지 남녘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배우지 못하다가 195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의용군에 입대하였던 것이다.

아저씨는 래년에 전문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저씨는 기어코 설계 기사가 되여 통일된 고향 땅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설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이 공장 영예 군인 아저씨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다.

지금 이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는 인민반, 초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227명의 영예 군인 아저씨들이 하루 6시간 일만 끝나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교실에 나란이 앉아 열심히 학습하고 있다.

《—과거에 내가 조국을 위해서 꽃을 피웠다. 지금도 꽃을 피우고 앞으로도 꽃을 피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과 조국을 위하여 계속 전진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투쟁해야 한다.》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열성자 대회가 끝난후 영예 군인 아저씨들에게 주신 김 일성 원수님의 이 말씀은 아저씨들의 가슴에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아저씨들은 금년 계획 과제를 10월 13일 현재 105%로 넘쳐 하였다.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든 아저씨들은 지금 매일 계획을 104% 이상씩 넘쳐 수행하고 있다. 한편 아저씨들은 명년 1.4 분기 안으로 10가지 이상의 좋고 쓸모 있는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영원히 아름답게 꽃 피자!

이것은 공산주의의 래일을 앞당기는 이곳 영예 군인 아저씨들의 가슴마다에 흐르는 오직 하나의 마음이다.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 할아버지—오냐 어서들 오너라 그래 이번 달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왔니?

영수—할아버지 이번엔 위생 과학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척척 할아버지—음! 아주 중요한 문제군, 어서 물어 봐라, 척척 대답해 줄게!

이번엔 내가 먼저 하나 물어 보겠다, 그래 너희들은 사람의 몸이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 졌는지 알고들 있느냐?

철호—거야 뭐 뼈와 살로 되여 있지요 뭐.

척척 할아버지—그럼 그 살은 무엇으로 되여 있지?

철호—그것은……?

척척 할아버지—하하… 고개를 기웃거리는 걸 보니 모르는 모양이로군.

사람의 몸은 말이다 세포라는 것으로 이루어 진 것인데 그건 수십억 개나 된다.

철호—아 할아버지 알아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세포들 하나하나가 떨어진다면 사람의 몸뚱이는 없어 지겠군요.

척척 할아버지—암 그렇지!

영수—할아버지 그럼 그 세포들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척척 할아버지—세포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생활을 하고 있지.

영수—생활을 한다구요?

척척 할아버지—그렇지 세포들 속에서는 항상 끊임 없는 운동이 진행되는데 이를테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새 것이 생겨 나오는 등의 과정이 진행된단다. 그러면서 세포는 서로 다른 일들을 하기도 하지.

설호—그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척척 할아버지—례를 들면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늘어 났다가 줄어 드는 성질이 있고 간장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담즙(열물)을 만드는 일을 하지.

영수—할아버지 세포들이 하는 일은 그것 뿐인가요?

척척 할아버지—그뿐이 아니지, 수십억 개의 세포들은 밖으로부터 끊임 없이 영양 물질과 산소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부터 세포 내에서 생긴 탄산가스와 기타 필요치 않은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지, 말하자면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다.

영수—원 할아버지두 그럼 세포두《숨》을 쉰단 말이예요?

척척 할아버지—암 《숨》쉬고 말고, 밖에서 산소를 받아 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니 이를테면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지.

영수—야 정말!

척척 할아버지—그러니까 세포들이《숨》을 잘 쉬게 하기 위해선 몸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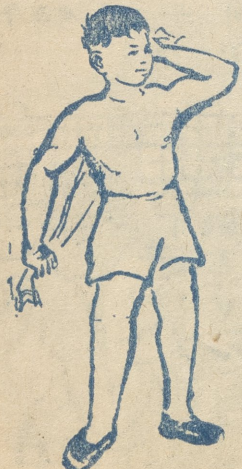
춥다고 목욕이나 세수를 하지 않는다면 세포들의 일이 잘 되지 않지, 그렇게 되면 이어 사람은 병에 걸린단다.

영수—할아버지 이젠 다른 문제를 하나 묻겠어요. 우리의 이 피부는 어떤 역활을 놀아요?

척척 할아버지—가만 내 먼저 하나 더 묻겠다.

너희들은 피부가 자기의 몸 무게에 비하여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영수—글쎄요…

척척 할아버지—그것도 모르느냐? 피부는 신체의 1/20에 해당된다. 피부는 우리의 몸을 둘러 싸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해로운 자극들로부터 몸을 보호하여 준다. 그리고 사람은 피부를 통하여 아픈것, 더운 것, 등등을 또한 감각한다. 피부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하는 것인데 내보내는 열의 87%는 피부를 통하여 나가게 된단다. 말하자면 체온을 조절하는 셈이지.

철호—할아버지 그런데 사람의 피부는 왜 반질 반질 하나요?

척척 할아버지—그건 말이다, 피부가 기름을 내보내기 때문이란다. 이 피부의 기름은 피부를 탄력성 있게 만든단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며 반질반질하게 만들지.

영수—할아버지 그럼 손이 트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겠군요.

척척 할아버지—암 있구말구, 때가 끼면 기름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손이 트는 것이란다.

철호—그러니까 피부에 묻은 때를 깨끗이 씻지 않거나 피부를 일상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살이 트고 피부병에 걸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에도 걸릴 수 있겠군요.

척척 할아버지—그렇구 말구, 그러기에 피부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다. 피부를 잘 단련만 하면 날이 차고 더워지는 때에도 절대로 감기엔 걸리지 않는단다.

영수—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피부가 체온을 조절한다고 하였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걸가요?

척척 할아버지—너희들은 공기 온도가 높을 때 모든 물체는 늘어나고 온도가 낮으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호—네 알고 있어요.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척척 할아버지—피부 속에는 무수한 피'줄기들이 있는데 주위의 공기 온도가 낮을 때에는 그 피'줄기들이 줄어들고 그 속을 흐르는 피의 량도 적어진다. 그렇게 되면 열을 내보내는 량도 줄어들게 아니냐. 이와 반대로 공기 온도가 높을 때에는 피'줄기들이 늘어나서 피도 더 많이

흐르게 되여 결국은 열을 내보내는 량이 많아진다.

영수—할아버지 그럼 몸의 열은 어데서 나나요?

척척 할아버지—몸의 열은 근육, 간장, 신장, 기타 기관들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일어난다. 근육들의 활발한 운동은 신체의 열 발생을 훨씬 높인단다.

철 호—아 알았어요. 운동만 하면 몸에서 열이 나는게 사실이예요.

척척 할아버지—그러니까 겨울에 춥다고 화로만 끼고 앉아 있어서는 못쓰지. 밖에 나가 재미 있는 유희와 운동들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란다.

영수—할아버지 그럼 피부를 어떻게 보호 단련하는 것이 좋아요?

척척 할아버지—좋은 물음이다. 그것은 1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하고 더운 물과 비누로 머리와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내의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양말은 세 번 이상 빨아야 한다. 그리고 방에는 벼룩, 빈대가 없도록 하고 침구와 내의에 이가 없어야 한다. 특히 랭수 마찰과 마른 수건으로 피부를 마찰하는 일은 건강에 아주 좋다. 이렇게 하자면 여름부터 시작해서 점차 습관을 부쳐 겨울에도 실시 하여야 한다.

손톱과 발톱도 항상 짧게 깎고 변소 출입 후, 작업 후 그리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피부 면적의 1/3 이상에 화상을 입게 된다면 생명에 위험을 가져 오기 때문에

난로 곁에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영수—할아버지 또 한 가지 묻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한 방안에 오래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아픈데 그건 왜 그런가요?

척척 할아버지—음! 그것도 재미 있는 문제이다.

사람은 호흡을 통하여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마시고 탄산 가스를 내보낸다. 그러니 방에 여러 사람들이 오래 있으면 탄산 가스만 방에 가득 차 있게 된다.

공기중에 탄산 가스가 많은 방은 불쾌한 냄새가 나며 습기도 많고 세균들도 많다.

철호—그러니까 방안 공기를 자주 갈아야겠군요.

척척 할아버지—암 그렇지 지금은 겨울이라고 문을 꽁꽁 닫아 놓고 있으면 그것은 건강에 도리여 해롭다.

철호—그러니까 환기를 잘 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척척 할아버지—한 시간에 한 번 정도씩 맑은 공기를 갈아 넣으면 좋다. 그리고 매 방에는 방'바닥 면적의 1/50에 해당하는 작은 문이 있어야 한다.

철호—할아버지 정말 재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일동—그럼 할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요.

척척 할아버지—오냐 잘들 가거라, 새해 1960년에 또 만나자.

교실의 하소연

—평남 순안 중학교 대 8분단에서—

글 최 옥선　　　그림 현 재덕

《학교가 다 깨끗한데 이 교실만은 지저분하군…》 나를 찾아 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답니다. 내 차림 차림이 지저분한 것이 내 탓인줄 아세요?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우리 반 소년단원 동무들이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동무들 가운데서는 혹시 《자기 차림이 지저분 한걸 뭘 남 탓이라구 원망할가…》 하고 나를 비웃기도 할 것이예요.

그러나 저 창문앞 마당에 널려져 있는 휴지들과, 다리를 부상당한 의자, 온 몸에 상처를 입은 방화용 바께쯔, 허리 부러진 비'자루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동무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널어 놓기를 좋아하는 동무들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상당한 의자——나야 주인을 잘 못 만나 병신이 되여 이런데 쫓겨나와 있지만 너희들이야 왜 이런데 나와서 바람에 굴러 다니며 고생을 하니?…

휴지——말 말어요. 이 교실에 사는 아이가 나를 실컷 부려 먹고는 내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창문을 열고 휙 던져 버리니 난들 어떻거겠어요.

방화용 바께쯔——이 교실 아이들은 정말 버릇이 나빠요. 나두 그 아이들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우. 청소 도구는 늘 잘 간수하지 않고 이리 저리 버려 뒀다가는 청소할 때야 부랴부랴 찾군 하지요. 그러다 바께쯔를 찾지 못하면 물도 뿌리지 않고 비'자루로 되는 대로 쓸어 버리고 달아난다우. 그리구 대청소 날이면 급해 맞아 나까지 끌어다 실컷 부려 먹고는 이렇게 내 던져서 이 고생을 시키군 하지요.

비'자루——아니, 나만 이 지경이 된줄 알았더니 방화용 바께쯔 아저씨도 나와 같은 처지 였군요. 나는 원래 저기 선생님들이 계시는 사무실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교실 아이들이 선생님들두 모르게 나를 끌어내다 실컷 부려먹다가 허리까지 부러뜨려 이렇게 밖으로 내쫓지 않겠어오. 어느 착한 아이들이 나를 보면 내 허리를 고쳐 주련만 누구 하나 나타나지 않는군요.

어떻거면 이런 버릇을 떼 놓겠는지 정말 야단 났어요.

부상당한 의자—— 나는 이 교실에서 4~5년을 살면서 수 많은 아이들과 같이 지내 왔지만 이 8분단 아이들 같이 자기 교실을 꾸리지 않는 아이들은 처음 봤소.

이 학교 위생 근위대원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좀 붙들구 사정을 이야기 해 줄 작정이요 아무리 참을래두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원.

8분단 동무들을 이렇게 욕하는 것은 이들뿐 인줄 아세요. 내 옆 가슴에 되는 대로 붙어 있는 벽보도 항상 불평이 많고 책상 의자들도 항상 불평한답니다.

책상에다 그림을 그리고 칼로 깎고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와 책상 발에 밟아 주니 책상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저 중간에 앉아 있는 김 창호 동무가 보이십니까! 저 동무는 얼굴은 곱살하게 생긴 동무인데 발을 씻지 않고 다닌답니다. 그뿐인가요. 전날에는 신발을 신은 채 책상 우에 올라가 떠들다가 책상 다리를 부러뜨려 놓았답니다. 위생 근위대원리 농윤 동무가 달려 와서 주의를 주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이런 동무들이 한 두 사람이면 걱정이 없지요.

지금 얼른 살펴 봐도 옷에 잉크를 묻혀 가지고 있는 동무,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군해서 옷에 흙이 묻은 동무, 머리 깎지 않은 동무가 6 명이나 되고 그리고 손톱이 긴 동무가 5 명, 발이 더러운 동무 15 명, 이를 닦지 않은 동무가 있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동무가 두 동무나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철이 되였으니 세수도 안 하는 동무들이 생기지 않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 속에서 사는 동무들이 이렇게 위생 문화 사업에서 뒤떨어지고 있으니 내가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동무들은 내 가슴에다 《생활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리자》고 구호까지 써 붙여 놓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분단 동무들도 다른 분단 동무들처럼 하루 속히 나를 깨끗이 꾸려 주고 자기 몸차림을 단정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단 열성자들도 분단의 위생 문화 사업에 좀더 관심을 돌려야 하겠고 위생 반장인 김 연기 동무도 잠에서 깨여나야 하겠어요. 그리고 위생 근위대원 동무들은 어느 분단 보다 이 교실에 사는 8분단 동무들을 더 관심 둬서 지도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남조선 어린이들의 비참한 이야기―

글 리 문 상 그림 천 문 민

칼바람이 휘몰아 치는 겨울 어느 날이였습니다.

서울 역에서 룡산으로 가는 철다리 밑 한 움막 집에서는 《아이쿠, 응…》하는 늙은이의 신음 소리와 함께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는 서너 살짜리 어린애의 애처로운 울음 소리가 엇쉬여 새여 나왔습니다.

이윽고 거적문을 들치고 열아믄 살 쯤 된 아이가 서너 살짜리 어린애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애는 인식이라는 구두 닦기 소년으로 배고파 허기져 우는 순자라는 제 누이 동생을 업고 나왔던 것입니다.

거리는 어두어 가는데 살을 어이는듯 한 찬 바람이 휘몰아치고 먼지가 휘날려 사뭇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다 해진 누더기 홑껍데기를 걸치고 보채는 어린애를 업고 허기진 걸음 걸이로 비청비청 걸어 가는 인식이의 목에는 가느다란 쇠줄로 올가맨 깡통이 매달려 달랑달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인식이는 온 종일 구두 닦기를 하려 거리를 돌아 다녔으나 푼전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는 수 없어 그는 저녁 끼니를 얻어 먹으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오돌오돌 떨면서 《미도파》라는 한 백화점 추녀 밑에까지 이른 인식이는 그만 추위와 허기에 지쳐 찬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두터운 털오바에 뾰죽하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부자'집 녀자 하나가 자동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다가 그를 흘깃하고 보았습니다. 순간 그 녀자는 마치 못 볼것이라도 본듯 눈쌀을 잔득 찌프리더니 침을 탁 배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자 백화점 안에서 술 취한 미국놈 병정 둘이 비츨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남조선이 온통 제 세상인듯 미친 놈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걸어 나오던 이 놈들은 쓰러진 인식이를 보자 마치 축구뽈이나 본듯 번갈아 걷어 찼습니다. 그때마다 인식이와 순자는 가느다란 신음 소리를 내며 공처럼 데굴데굴 딩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때 뿐이였습니다.

인식이와 순자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만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그들은 이미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죽은 인식이와 순자의 시체는 쓰레기를 쳐 가는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남조선 어느 한 신문에 실린 눈물 겨운 한토막의 이야깁니다.

이 얼마나 눈물과 격분이 없이는 듣지 못할 비통한 이야기 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놈들이 제 세상인 것처럼 날치고 리 승만이와 같은 극악한 지주 자본가 놈들이 우글거리는 남조선에서는 이런 비통한 사실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남조선 신문들에 실린 것을 보면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 전쟁때 부모를 잃은 아이들만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서울에 만도 떠돌아 다니는 아이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굶주리고 병들어 인식이와 같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조선의 이러한 형편을 보고 간 외국의 어느 한 소설가는 남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파리와 같이 죽어 가고 있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남조선에서는 금년에도 수 많은 어린애들이 사납고 악독한 미국 농장주들에게 종으로 팔려 갔습니다.

부산에서 나오는 《부산 일보》라는 신문에는 금년 초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실리였습니다.

리 영수라는 열 살난 소년과 박 이레나라는 여섯 살난 소녀가 거리를 구걸하며 헤매 다니다가 《파리티 노예》라는 미국 군대놈에게 끌리여서 미국에 건너가게 되였습니다. 이 놈은 그애들을 미국 농장주에게 팔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주놈은 다시 더 많은 돈을 받고 다른 농장주 놈에게 팔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리 영수와 박 이레나는 개나 돼지와 같이 채찍에 얻어맞아 가면서 이리 저리 팔려 다니였습니다.

미국에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겠다》하고는 부모 없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사다가 종으로 만들어서 혹독하게 부려 먹는 흉악한 놈들이 많습니다. 또 《양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남조선과 같은 곳에서 고아들을 데려가서 이 놈 저놈에게 팔아 먹는 노예 상인들이 많습니다.

리 승만이는 지난해까지에 1천 여명의 남조선 고아들을 미국 노예 장사'군에게 팔아 먹었는데 금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팔아 넘기였습니다. 지난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에 각각 수백명씩 도합 2천명을 어린 노예로 미국 노예 장사'군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어린애들을 팔아 먹는데 이골이 난 리 승만이는 미국 신문 기자 앞에서 이렇게까지 지껄였습니다.

《더러운 남조선의 고아들을 태평양 바다'물 속에 던져 버리는 한이 있드라도 남조선에서 내보내고 싶다》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부모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법인데 리 승만이는 고아들이 보기 싫어서 바다'물 속에 집어 넣겠다고 하였으니 이놈은 필경 사람이 아니라 짐승 중에도 아주 고약한 짐승입니다.

오늘 남조선에는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아이들이 백만 명이나 넘고 겨우 학교라고 다니게 된 아이들도 조반을 굶고 다니며 학교 교사라고 하는 것이 천막을 친 것이거나 널판자로 둘러막아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남조선에서도 제일 번화하다는 서울, 서울에서도 하 복판에 있는《덕수 국민 학교》에서는 천막을 친 교사에서 하루 여러 차례씩 공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조선에서 이와 같이 비참한 일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흉악한 강도놈들인 미국놈들이 기여 들어와 제 나라처럼 활개를 치고 있으며 미국놈의 개노릇을 하는 리 승만 도배가 나라를 팔아 먹으며 인민들을 못살게 억압 착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놈들을 우리 나라 남쪽 땅에서 즉시 물러 가게하고 우리 조국을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가엾고 애처로운 남조선 어린이들이 가시밭이 아닌 땅 우의 락원에서 우리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며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평양 체육 대학 리 농윤

서로 치기

이 유희는 전체 유희자들이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겨울철에 적합한 놀음으로써 집단 주의 정신과 민첩성과 달리는 힘을 기를수 있다.

1. 유희 조직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3조로 나눈다.

2. 유희 장소 및 유희자의 배치

ㄱ. 유희 장소. (그림을 볼것)

ㄴ. 유희자의 배치

매 조가 1렬 횡대로서 3렬 횡대로 선다. 지도자는 유희자들의 횡대 앞 중앙에 위치 한다.

3. 유희 방법

ㄱ. 지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3조에서 번호가 같은 유희자들을 다 알고 유희 장 임의의 장소에로 흩어 진다.

ㄴ. 지도자의 시작 신호에 의해서 전체 유희자가 동시에 활동하는데 1조의 1번은 2조의 1번을 치고 2조의 1번은 3조의 1번을 치고 3조의 1번은 1조의 1번을 치며 다른 유희자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치게 된다.

ㄷ. 1, 2, 3조 중에서 먼저 친 유희자가 승리자로 된다.

ㄹ. 유희자들 가운데서 70%가 치웠다고 인정 되였을 때에는 놀음을 그치고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ㅁ. 승부는 승리자들이 많은 조가 이긴다.

ㅂ. 다시 시작할 때에는 유희자가 임의의 장소에 흩어진 위치에서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한다.

4. 주의 할 점

ㄱ. 유희 실시 중 어느 한 유희자가 유희 장소 밖으로 나간다면 그를 잡으려던 유희자가 승리자로 된다.

ㄴ. 3명의 유희자가 동시에 쳤을 때에는 그 3명에 대해서만 다시 실시하게 한다.

고기 몰기

이 유희는 유희자 전체가 동시에 할수 있다.

이 유희를 통하여 빨리 달리는 힘과 집단주의 정신과 그리고 민첩성을 기른다.

1. 유희 조직

유희자중 1명～2명의 그물을 선정한다.

유희 장소가 넓고 유희자가 많을 때에는 그물을 3명～4명으로서 증가하는 것이 좋다.

2. 유희 장소 및 유희자의 배치

ㄱ. 그물은 유희 장소의 중앙 부근에 자리 잡는다.

ㄴ. 나머지 유희자들은 고기가 되여 유희 장소에 적당히 배치한다.

ㄷ. 지도자는 유희 장소의 중앙편 혹은 우측에 위치한다.

3. 유희 방법

ㄱ.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고기들은 임의의 방향으로 달린다.

ㄴ. 그물은 고기들을 따라가서 치게 된다.

ㄷ. 그물에게 치운 고기들은 그물과 손을 잡고 계속 그물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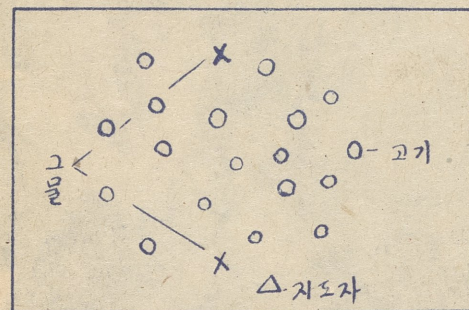
ㄹ. 그물 가운데서 왼편과 바른편에 있는 유희자만이 고기를 칠 수 있다.

ㅁ. 고기들은 그물 사이로 빠져 나갈 수 있다.

4. 주의할 점

ㄱ. 고기들은 그물들이 손 잡은 것을 끊고 나갈 수 없다.

ㄴ. 고기들과 그물은 유희 장소 밖으로 나갈 수 없다.

ㄷ.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물의 구루빠 수를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다.

ㄹ. 다시 시작할 때에는 처음의 방법과 같이 실시한다.

한 손으로 공 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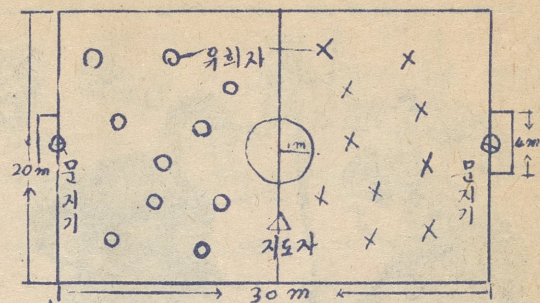
이 유희는 전체 유희자가 동시에 활동하는 유희로 겨울 철에 적합한 놀음이다.

1. 유희 조직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누어 각 편에 1명의 문 지기를 선정한다.

2. 유희 장소 및 유희자의 배치

ㄱ. 유희 장소(그림을 볼 것)

ㄴ. 유희자의 배치

유희자들은 자기 편 구역에 적당히 서 있다.

문 지기는 문전에 선다.

지도자는 유희 장소 중앙 부근에 선다.

3. 유희 방법

ㄱ. 구역 또는 공을 어느 편이 먼저 차지하는가 하는 것은 쟁권에 의해서 결정한다.

ㄴ. 경기 시작 전에 공을 가지고 있는 상대편 유희자들은 중앙 원 밖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ㄷ. 지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중앙에서 공 련락이 시작되면 전체 유희자들은 한 팔을 허리에 가져다 붙이고 허리를 굽혀 한 팔로써 공을 반드시 지면으로 몰며 련락 한다. 그리하여 상대편 골문으로 몰고 가서 넣는데 성공되면 1점을 얻는다.

ㄹ. 문지기는 한 팔을 허리에 붙이고 한 팔로써만 공을 잡고 지면으로 련락해 준다.

ㅁ. 점수를 얻은 후 유희의 시작은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4. 주의 할 점

ㄱ. 한편의 인원수를 10 여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ㄴ. 얼음판 우에서는 공 대신에 얼음덩이로도 할 수 있다.

ㄷ. 공 몰기와 련락은 유희자의 무릎 아래로 련락해야 하며 무릎 우로 공을 몰고 련락 하거나 차거나 또는 허리에 붙인 팔을 떼서 몰 때는 상대 편에게 공을 빼앗기며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 한다.

ㄹ, 공이 유희 장소 밖으로 나갈 때는 선 우에 공을 놓고 손으로 련락한다.

경제림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은 경제림을 더 많이 만들 데 대한 분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는 꾀마 과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등 각종 나무들을 어떻게 식수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의논하였습니다.

리 명기 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경제림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 섬유와 제지 공업, 식료 가공 공업의 중요한 원료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연에 대한 피해를 막아내며 아름다운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르게 하여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는 참으로 보람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황무지 8정보를 개간하여 《꾀마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의 과수목에 20kg의 비료를 주기 위하여 객토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경제림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일로 좋은 나무 종자 씨들을 눈 내리기 전에 받는 일들을 조직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임에서 결의한 량보다 150%(97kg)나 나무 종자 씨들을 받았습니다. 받은 씨들 중에는 솔 씨, 아까시야 씨, 동배나무 씨, 분비나무 씨 등을 비롯하여 7 종의 씨들이 들어 있습니다.

강변엔 질 좋은 섬유 원료로 되는 포플라나무, 백양나무, 황철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새해 봄엔 향기롭고 영양가 높은 기름을 짤 수 있는 잣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분지나무, 개암나무들을 많이 심으며 피나무, 아까시야, 싸리나무 등을 심어 꿀벌을 쳐서 양봉업도 발전 시킬 계획입니다.

강원도 고산군 석왕사 중학교
박 현 호

두 오누이

평양 서문 중학교에 다니는 두 오누이—강 열민이와 강 경순은 위생 문화 사업에 모범이다. 자기 몸을 단정히 거두며 항상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두 오누이는 개인 위생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와 가정의 위생 문화 사업에서 모범이 되여 선생님과 마을의 어른들께서 늘 칭찬을 받고 있다.

⬆ 《아침 청소가 끝나면 우리는 몸을 깨끗이 하지요.》

⬅ 어머니가 비나 걸레를 쥐여보기는 매우 힘들다. 오누이가 어머니의 손이 미칠 새 없이 깨끗이 거두어 방은 언제나 거울처럼 윤른거린다.

그들은 가끔 마을의 아주머니들에게 위생 지식도 선전하고 있다. ➡

《손톱이 돋아서야 깎아 주지.》
《그래도 깎아 줘.》 ⬇

밖에 나가기 전에는. ⬇

물건 잡기 놀음

이 놀음에서 물건은 성냥갑이나 실패 또는 나무 토막 즉 손 쉽게 잡을수 있고 작고 가벼운 물건이면 아무 것이나 다 될 수 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물건을 걸상 우에 놓는다. 걸상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공격수와 방어수가 서로 맞대고 선다. 다섯 또는 여섯 쌍을 가진 두 팀간에 경기가 진행되게 된다.

물건은 방어수에 가까운 걸상 모서리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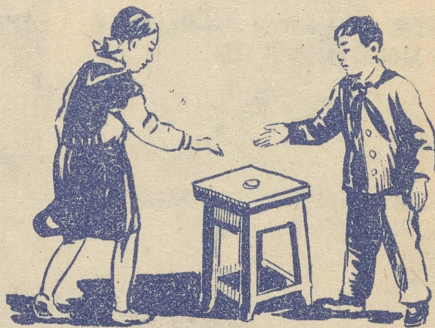
심판관의 호각에 따라 각 쌍들은 일제히 경기를 시작한다.

공격수는 방어수의 손에 다치우지 않고 걸상에서 물건을 잡아 빼야 한다. 방어수는 공격수가 하는 동작을 그대로 정확히 반복하여야 한다. 즉 공격수가 앉으면 방어수도 앉아야 하고 공격수가 손을 우에 처들면 방어수도 처들어야 하며 공격수가 머리를 바로 잡으면 방어수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공격수는 방어수의 주의를 물건에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일부러 한다. 그러나 공격수는 발뒤'축을 자리에서 뗄 수는 없다. 만일 공격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고 동작을 취하는 경우에는 방어수는 그 동작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이 놀음은 매우 유쾌하게 진행되는데 특히 방어수가 공격수의 동작을 반복할 때면 매우 희극적이다.

방어수는 손으로 물건을 덮을 수도 있으며 만일 이미 공격수가 물건을 잡았을 경우에도 방어수는 공격수의 손을 다칠 수 있다. 이때 심판관은 놀음을 중지시키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방어수 팀에 1점을 준다. 만일 공격수가 방어수의 손에 다치우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심판관은 공격팀에 2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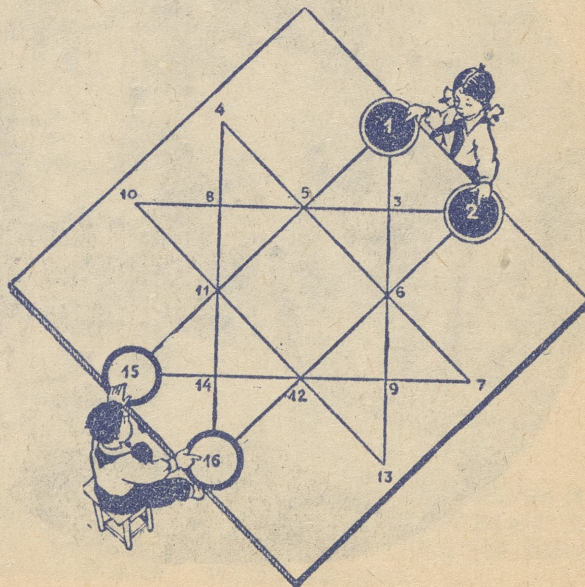
5분간 경기를 계속한 다음 량 팀이 교체하여 공격팀이 방어팀으로 방어팀은 공격팀으로 된다. 이렇게 하여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이긴 팀으로 된다.

표말 쓰기 놀음

큰 종이'장에 다음과 같은 도표를 그린다. 두 개의 검은 말은 번호 1과 2점에 놓고 흰 말은 15와 16에 놓는다. 경기가 시작되면 말을 옮기는 회수를 가장 적게 하면서 흰 말은 검은 말의 본래 위치로, 검은 말은 흰 말의 본래 위치를 향하여 전진한다.

이렇게 하여 누구의 말이 먼저 가 닿는가 하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말을 옮길때 한 점에서 다른 빈점에 옮겨야 한다. 만일 상대방의 말이 바로 앞 또는 옆에 놓여 있을 때는 그 점을 건너 갈수 없다

간단하게 뜰수있는 장갑

① (첫 시작)

이 장갑 모양은 처음 뜨개질을 배우는 동무들도 쉽게 뜰 수 있습니다.

손'가락 다섯을 다 내서 뜨는 장갑보다 뜨기도 쉽고 손'가락도 시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 장갑 한 켤레 뜨는데 60~70 그람의 털실이 듭니다. 동무들의 것은 물론 어린 동생들이나 어머니 아버지 것도 이런 식으로 뜨면 좋습니다. 다만 색갈 조화만을 잘 생각해서 어린 동무들 것은 갖가지 색을 넣어서 뜨고 어머니 아버지 것은 단색으로 뜨세요.

먼저 뜨기 전에 실의 굵기에 따라 한 코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고 너비에 따라 코수를 정하세요. 만일 세코가 1cm되는 실의 굵기라면 팔목 둘레가 12cm라면 $12 \times 3 = 36$ 이렇게 승하여 36코로 정해야 합니다.

어린 동생 것은 32코 정도로 하고 어른 것은 48코 가량 정하십시요.

뜨는법

먼저 장갑 목다리를 뜨는데 3개의 장대 바늘을 리용하여 36코를 3개 바늘에 12코씩 갈라서 그림 1과 같이 둥글게 5cm 가량 뜨는데 한 코는 겉뜨기로 뜨고 한 코는 안뜨기로 뜹니다. 5cm 가량 뜨고 다음은 손'바닥을 만듭니다. 처음 팔목에서 두 도리 뜨고 세째 도리부터 두 코를 뜨고 코와 코 사이의 교차점에 있는 실을 걸어서 한 코를 늘입니다. 그 다음의 두 도리를 그냥 뜨고 늘인 코의 중심을 두고 량옆에서 각각 한 코씩 두 코를 더 늘여야 합니다(그림 2 참조) 이렇게 늘이면 늘이는 간격은 점점 2코씩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뜨는 방법으로 한 도리 건너 엄지 손가락을 만들 3코가 되였으면 다음 2도리는 늘이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냥 뜨고 그 다음 도리에서는 이 3코를 중심하여 3코의 좌우편에서 각각 한 코씩 또 늘이면 다섯코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리가 늘때마다 5코가 7코, 7코가 9코가 되고 9코가 11코 이렇게 해서 15코가 되는 때까지 뜹니다. 두 코를 늘여서 엄지 손'가락과 손바닥 분을 가릅니다.

늘이는 코들은 기본 코를 만들어서 늘여야 됩니다.

이렇게 늘이고 나면 16코 분을 따로 세 바늘에 나누어 가지고 엄지 손가락을 뜹니다. 16코가 준비되면 둥글게 (그림 3 참조)통으로 뜨는데 엄지 손'가락 길이의 2/3까지 뜨고 그다음 도리부터 줄이는데 줄일 때는 한 번에 2코씩 줄이다가 그후부터는 매도리에서 쭉 줄여서 마지막 코의 실끝을 안쪽으로 뽑아서 풀리지 않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은 손'바닥을 뜨는데 엄지 손'가락을 뜰때 늘여서 멈추어 둔 그 장소에서 4코를 다시 늘여서 바늘에 꿰서 둥글게 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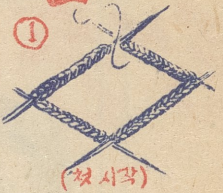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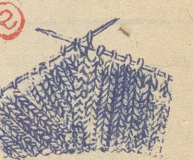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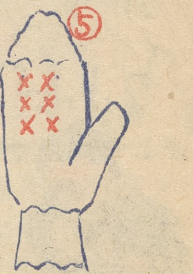
이 장갑은 엄지 손'가락 만을 따로 만들고 다른 네 손'가락은 그냥 통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통으로 뜨다가 손'가락 끝을 줄일 때에는 처음은 2도리 만을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매도리 마다 줄여서 손'가락 끝을 만듭니다.

손'가락 끝을 곱게 줄이기 위하여서는 손'가락 량옆에 두 줄이 서게 즉 한 도리에서 2코씩 매번 4코씩을 줄여서 뜨다가 마지막 코의 실끝을 안쪽으로 뽑아서 풀리지 않도록 정리하면 장갑은 다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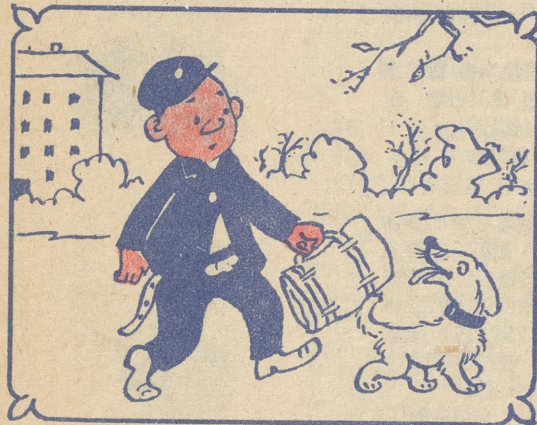
녀자용 장갑을 뜰때는 여러가지 색을 잘 배합해서 알락달락하게 뜨면 이쁩니다. (그림 4 다된 모양 참조)

손목도리와 엄지 손'가락을 한 색으로하고 그 색을 기본으로 거기에 맞는 여러가지 색을 배합하는등 창발성을 발휘해서 뜨십시요.

또는 단색으로 뜨고 손 잔등에다 다른색 실로 ×형의 수를 간단하게 놓아도 좋습니다. ×자형 자수를 칠때는 귀가 큰 바늘에 꿰가지고 간단하게 뜨개 코를 따라서 문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 5 참조)

행동의 거울

이게 소년단원의 몸가짐일가요

거울에 비친 평남도 룡강 고급 중학교대 제 8분단 김 덕수 동무의 옷차림을 좀 보세요, 단추는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혁띠도 잘 묶지 않아 제 멋대로 너덜거리고 있지 안아요. 그리고 목에는 넥타이도 없으니…

이게 어디 소년단원의 몸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동무들의 개인 위생도 도와

량강도 풍서군 문조 중학교 제 3 학년생인 김 국언 동무는 항상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동무입니다.

그는 자기 몸만 깨끗이 거둘 뿐 아니라 동무들에게도 개인 위생을 잘 지키도록 도와 주며 때로는 이렇게 동무들의 머리까지 깎아 준답니다.

누가 하는 일일가?

매일 아침 일찌기 나와 아무도 모르게 학교 둘레를 깨끗이 청소하는 이 동무들에겐 한때 《7시 10분》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기특한 이 동무들은 평남도 강동군 흑령 중학교의 리 명실 동무와 조 승연 동무들이지요.

《까 마 귀 사 촌》

벌써 사흘째나 세수하지 않은 그의 얼굴이며 손은 까마귀도 몰라볼 지경이지요, 남포시 해방 중학교대 제 7분단의 길 수 동무, 하루 속히 분단 동무들의 충고를 접수하고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훌륭한 소년단원이 됩시다.

꽁무니만 뺀다

황남도 태탄군 학천 중학교의 인민반 4학년 2반 강 창모 동무는 언제까지 이렇게 동무들에게 애를 태울 작정인가요? 몸에는 때가 새까맣건만 《목욕은 해서 무엇해…》하고 꽁무니만 뺀답니다.

항상 앞장 서서

누구도 하기를 싫어하는 변소 청소를 스스로 맡아 하는 이 기특한 동무들을 칭찬해 줍시다. 무엇이건 깨끗이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이 동무들은 황남도 연안군 연성 중학교대 제 3분단의 김 홍환 동무와 김 영만 동무입니다.

교 실 도 내 몸 처 럼

오늘도 일찌기 학교에 나와 교실의 유리를 닦고 있는 이 동무는 누구 일가요? 그는 동무들의 책상이나 걸상 밑에 떨어진 작은 종이 쪼각 하나만 보아도 《우리 모범 분단의 수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깨끗이 거두는 순안군 상송 중학교대 제 5분단의 강 옥실 동무이지요.

알아 맞추세요

아래의 그림은 어느 책에 있는 그림입니까? 그의 제목은 무엇이며 그림에 대한 내용을 적어 보세요.

10호 현상 문제 해답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답이 나옵니다

(1) 9+8+7+65+4+3+2+1=99(7개)

(2) 9+8+7+6+5+43+21=99(6개)

당선자

지역	학교	이름
함북 회령군	회령 중학교	리 옥란
함북 길주군	길주 중학교	김 태국
함북 온성군	고성 중학교	박 동현
함남 함주군	풍성 인민 학교	주 활유
함남 홍남시	해방 중학교	리 병룡
함남 허천군	상농 중학교	강 려윤
자강 전천군	화룡 중학교	김 정웅
자강 강계시	고당 중학교	백 일영
자강 룡림군	남흥 중학교	김 창하
평북 구성군	조양 중학교	김 성남
평북 박천군	신평 중학교	김 옥순
평북 피현군	량책 중학교	길 재덕
평남 성천군	삼덕 중학교	민 동민
평남 은산군	동삼 중학교	김 명자
평남 룡강군	동전 중학교	리 승학
황남 벽성군	벽성 초등 학원	정 연호
황남 평천군	신명 중학교	윤 옥화
황북 은파군	양동 중학교	황 대수
황북 신계군	신계 중학교	김 형진
량강 혜산시	혜산 초등 학원	박 도운
량강 후창군	고읍 중학교	박 용철
량강 풍산군	미감 중학교	지 호철
강원 이천군	회산 중학교	김 영순
평양시	신률 중학교	리 계주
평양시	문신 중학교	전 창근
평양시	봉화 중학교	안 룡옥

편집 위원 김 주현 (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응호 송 정우 정 택선 조 순형

1959년 12월 10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12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12호 (총 122호)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4599 값 25 전 150,000부 발행

한해를 보내면서

친애하는 독자 동무들!

승리와 영광의 해인 1959년도 바야흐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1959년이야말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찬연히 빛날 위대하고도 자랑찬 한 해였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영명한 령도 밑에 슬기로운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이룩한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들의 보다 좋은 래일을 약속해 주는 귀중한 터전으로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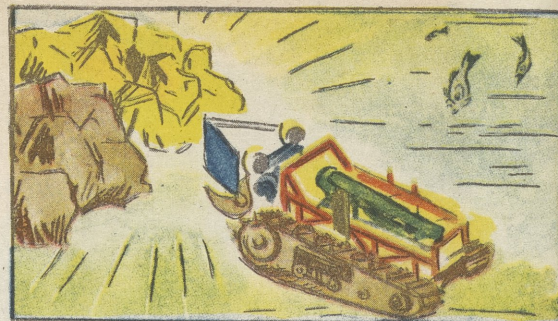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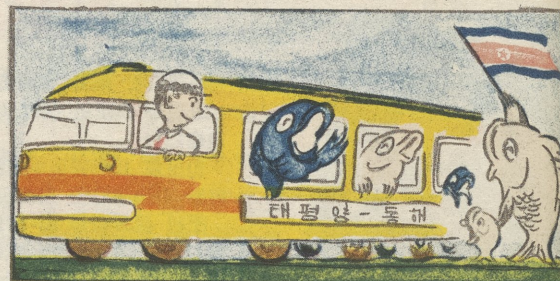
한 해'동안 조선 로동당의 따뜻한 어머니 품속에서 보람찬 나날을 보낸 우리들 소년단원들에게도 많은 귀중한 자랑들이 생겨났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빛나는 혁명 정신을 물려 받아 그를 생활에서 꽃피운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며, 배운 지식을 직접 생산 실습을 통해 더 잘 익혀 나간 일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답게 참되고 아름다운 품성을 키워나가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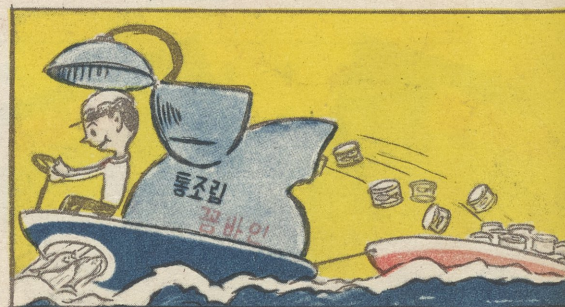
잡지 《소년단》도 한 해를 통하여 소년단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와 소년단 생활에서 학습에서 이루워진 귀중한 경험들을 소개하기 위해 부족은 하나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지 《소년단》은 아직도 독자 여러 동무들의 참된 동무로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되는 것이 많습니다. 잡지 《소년단》은 1960년도 새 해 부터는 이 모든 부족을 고치고 참된 소년단원들의 친한 동무가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새 해에도 잡지 《소년단》을 위하여 더 좋고 귀중한 의견들과 도움을 주실 것을 바라며 새 해에도 독자 동무들의 학습과 생활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소년단》 편집부

길호는 바다속에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 낸다면 나라는 얼마나 부강해 지겠는가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멋진 수중 땅크를 잡아 타고 바다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얼마간 가다가 무성한 숲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해초림이였습니다. 길호는 땅크에 톱날 장치를 한다음 삽삽이 베여 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약재였습니다.

또다시 길을 떠난 길호는 얼마간 가다가 땅크에 장치된 전파탐지기를 리용하여 대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길호는 잠수복을 입고 땅크에서 내려 땅속에 철관을 꽂았습니다. 그러자 그 철관으로 분수처럼 검은 기름이 막 솟아 올랐습니다. 인제는 비행기나 자동차의 연료 걱정이 없게 되였습니다.

길호는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간 가다 그는 큰 바위에 부디쳤습니다. 길호는 땅크에다 굴착기계를 장치하여 굴착기를 만들어가지고 땅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속에는 금, 은 보화가 가득하였습니다. 길호는 앞으로 여기에 바다밑 광산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길호는 바다속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태평양에서 우리 나라의 바다에 없는 다른 물고기 종류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나라의 바다에 어족들을 늘구기 위하여 태평양의 고기들을 운반하여 왔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바다—동해와 서해에는 수많은 어족이 늘어났습니다.

길호는 물고기들을 어서 빨리 자래워 인민들의 식탁에 맛있는 생선들을 더 많이 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수한 사료를 연구 해냈습니다. 길호가 뿌려주는 사료를 먹은 물고기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길호는 자동 통조림 콤바인을 창안 했습니다. 그가 창안한 통조림 콤바인은 그저 단추만 누루면 바다의 각종 고기들이 제절로 콤바인으로 들어와서는 통조림으로 되여 쏟아져 나옵니다. 길호의 솜씨에 의해 물고기들은 손쉽게 통조림으로 가공 되였습니다.